광주 '성빈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 요리교실

이제 혼자 있어도 굶을 걱정 없어요

형편이 어려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해야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한 민간 복지단체의 도움으로 '요리사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19일 오후 3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성빈아동센터' 2층에서 15명의 어린이가 옹기종기 모였다. 센터가 매달 한 차례 운영하는 '나도 요리사' 교육시간이다.

"오늘은 '단호박 닭가슴 카레'를 만들어 볼까요. 자~ 다들 준비됐죠?"

매달 한 번, 20여회 강좌

자원봉사로 나선 손인선(여·29) 영양사가 요리 시작을 알렸다.

교육생 중 제일 어린 막내 아름(여·8·초등 1년)이가 냄비를 잽싸게 가져가 카레 가루를 물에 풀기 시작했다. 언니 보름(여·10·초등 3년)이는 닭 가슴살을 포장지에서 꺼내 그릇에 옮겨 담았다. 개구쟁이 진수(9·초등 2년)도 단호박을 갖고 장난치다 옆에 있던 야채를 수북히 냄비에 넣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온다. 그 시끌벅적 속, '오늘의 요리'가 40여 분 만에 완성됐다.

"와~ 맛있겠다. 선생님 빨리, 빨리요."

카레 냄새가 방 안 가득히 퍼지자 아이들 목소리가 커졌다.

떡볶이·피자 혼자서 척척

'성빈아동센터'(원장 남영숙 목사)는 지난 2005년 5월 개소 후 양림동 지역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국어·논술·음악교실·종이접기·독서지도 등 9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나도 요리사'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다. 지금껏 매달 한 번, 모두 21차례 치러졌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피자에서 버섯 샤브샤브, 부대찌개까지~. 이젠 아이들도 웬만한 음식은 혼자서 만들어 먹는 수준에 올랐다.

수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요리에 익숙지 않은 아이들이 재료를 망가뜨리고, 교실을 어지럽히곤 했다. 조리칼로 장난을 하는 바람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때도 많았다.

손인선 영양사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습관이나 예절 체계가 안 잡혀 있어 힘들었다"면서 "지금은 '선생님 먼저 드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의젓해졌다"고 자랑했다.

식습관 고치고 예절 배워

주영(여·9·초등 2년)이는 "야채 볶음밥을 만들어 본 뒤로 평소 먹지 않던 야채를 잘 먹게 됐다"고 했고, 요리사가 꿈인 혜경(여·11·초등 4년)이는 "요리수첩을 만들어 배운 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재료를 적어놓고, 집에서 매일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빈아동센터'가 '나도 요리사'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부모들과 떨어져 있는 어린이들이 혼자서도 여러가지 요리를 해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빠듯한 운영비 속에서 매회 5만~1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의 서경남(여·29) 복지사는 "후원에 의지하다 보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아이들에게 많은 요리를 못해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19일 오후 광주시 남구 양림동 '성빈아동센터' 2층 교실에서 열린 '나도 요리사' 프로그램. 손인선 영양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10여명의 아이들이 '단호박 닭가슴 카레'를 만들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나욱참 〈7033〉 김종두

문화재 관람료 왜 안 받나 했더니…

백담사·백련사 인력없어 매표소 관리 못해

국립공원 내 조계종 사찰 22곳 가운데 설악산 백담사, 덕유산 백련사와 안국사가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담사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부터 문화재관람료 1,600원을 받지 않고 있다. 백담사 관계자는 "충분한 인력이 없어 매표소를 관리하기도 어려워 관람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덕유산 백련사도 백담사와 같은 이유로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기존 1천600원에서 400원 더 올린 2천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포근한 大寒 광주·전남 주말 따뜻

20일은 '1년 중 가장 추운 때'라는 대한(大寒). 하지만 하루 종일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등 주말 나들이하기 좋을 날씨가 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지 않고 우리나라 북쪽에 머무르면서 주말 광주·전남에는 오전 한 때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전체적으로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20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8도까지 올라가 평년(영하 3.9도~영상 4.7도)보다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아침 기온은 순천·진도 영하 4도, 무안·나주 영하 3도, 완도 0도 등 영하권에 머물겠지만, 낮에는 6~10도 수준까지 회복하고 바람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휴일인 21일도 최고 10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날보다 따뜻할 전망이다.

한편 대한은 소한(小寒) 15일 후부터 입춘(立春) 전까지의 절기로, 말뜻과는 달리 춥지 않은 탓에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갔다 얼어 죽었다" "소한 얼음, 대한에 녹는다"는 얘기가 생겼다. 이 때문에 옛 사람들은 대한의 마지막 날을 겨울을 매듭짓는 날로 보고 계절적 연말일(年末日)로 여겼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나들이 길 햇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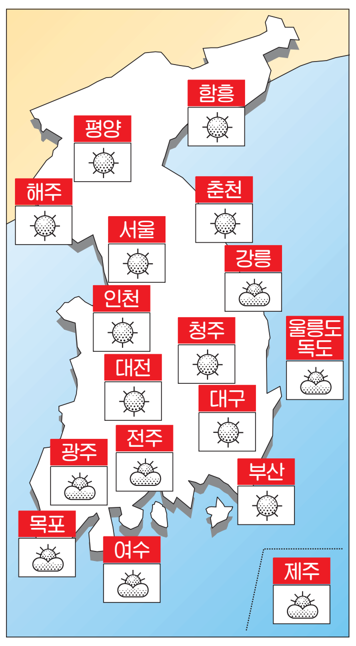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1월 20일 (음 12월 2일)

날씨

◇전국날씨

광주	구름많음	-2~8℃
목포	구름많음	-1~6℃
여수	구름많음	1~8℃
완도	구름많음	0~8℃
구례	구름많음	-4~9℃
해남	구름많음	-4~8℃
장흥	구름많음	-4~8℃
고흥	구름많음	-3~9℃
순천	구름많음	-4~9℃
영광	구름많음	-2~7℃
진도	구름많음	0~8℃
전주	구름많음	-3~8℃
남원	구름많음	-6~8℃
정읍	구름많음	-3~7℃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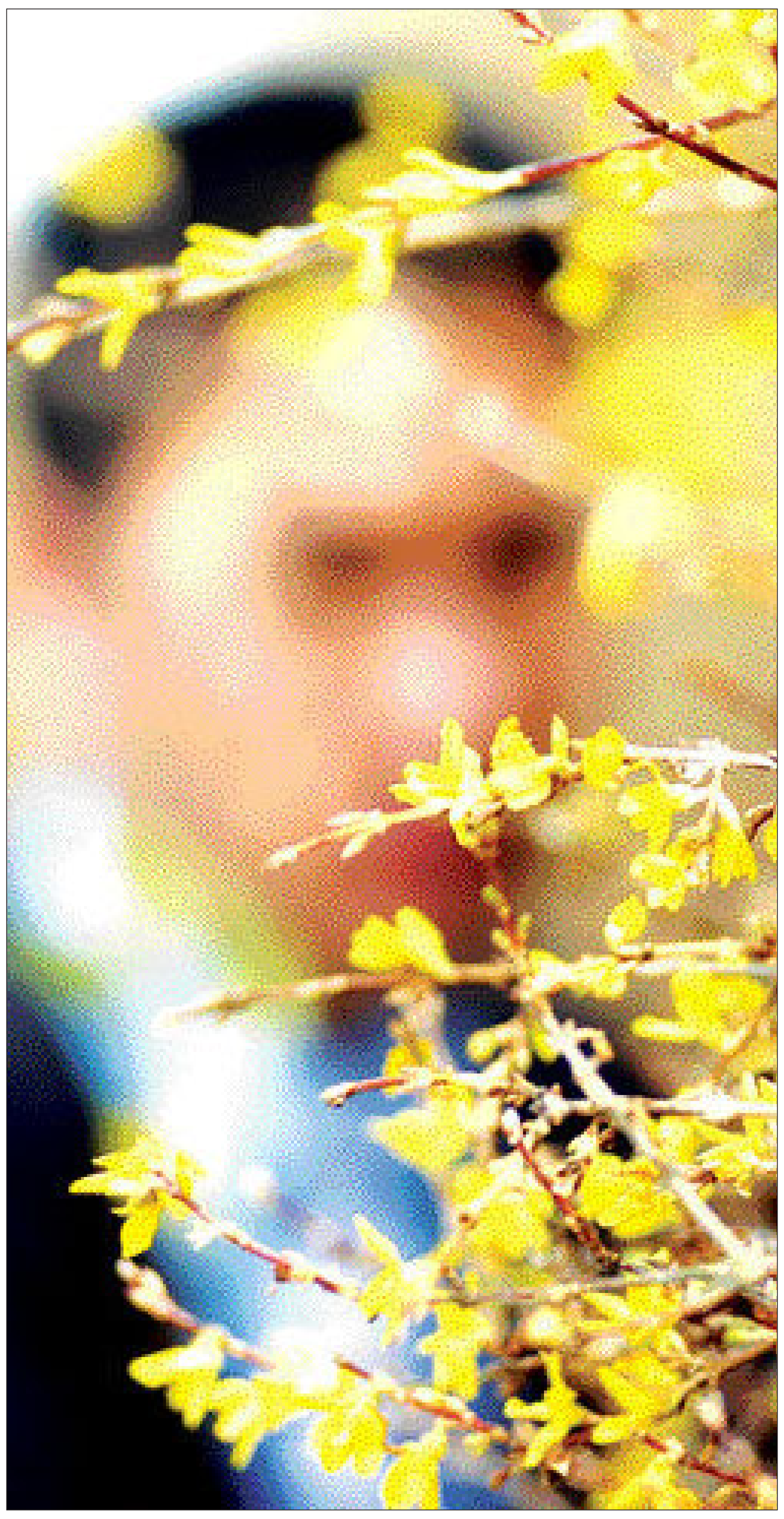
목포 밀물 02:35 / 15:24 썰물 08:02 / 20:43

여수 밀물 10:12 / 22:16 썰물 03:36 / 16:18

▲해뜸 07:39 ▲해짐 17:48 ▲달뜸 08:33 ▲달짐 18:5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날씨						
최저/최고	0/9	-2/7	-2/7	-1/7	-2/6	-2/4



봄이 벌써 왔나? 한겨울, 영상의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자 계절을 잊은 '철없는' 개나리가 19일 여수에서 노오란 꽃망울을 터트렸다. 올 겨울은 '일 년 중 가장 춥다'는 20일 대한(大寒)도 평년보다 포근, 봄꽃 개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다. /여수=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게임장 상품권 환전 금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내달 중순까지 집중 단속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상품권·점수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가 19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9일부터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사행성 게임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환전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얻은 경품·상품권·점수 등을 환전해 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업주가 직접 운영하거나 업주와 공모해 운영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외에는 처벌 법규가 없었으나 19일부터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전 행위가 전면 불법화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기존 게임기의 재심의 기한이 만료돼 게임기 경품용 상품권이 전면 퇴출되는 4월28일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함께 고액 경품 제공,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급식 트랜스지방 제재

신학기부터 과다 사용땐 과태료·징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트랜스지방을 비롯한 유지류와 염분 등을 초·중·고교 급식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올해 신학기부터 관련 당사자에게 과태료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대통령 재가를 받음에 따라 2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만이나 심장병,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과 동물성지방 등 유지류와 염분, 단순당류, 식품첨가물 등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고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며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토록 했다. 트랜스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반찬류를 식단에 올려 전체 열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15~30%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교육 당국은 정기점검을 통해 영양관리기준을 위반한 학교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급식업체 등에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트랜스지방＝불포화지방산인 식물성 기름을 가공식품으로 만들 때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을 많이 섭취할 경우 체중이 늘어나고, 심장병·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이 생긴다. 쇼트닝·파이·냉동용 피자·도넛·케이크·쿠키 등에 많이 들어 있다.

광양 대운저축은행 6개월간 영업정지

금감원 "BIS 크게 미달"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광양에 본점을 둔 대운저축은행에 대해 7월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운저축은행은 광양 본점 외에 광주와 순천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2006년 9월 말 기준 총자산규모는 2천65억원이다.

영업정지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수신과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예금 지급도 중단된다.

현재 대운저축은행의 거래계좌 수는 4만8천377개, 거래자는 3만9천875명이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주월점 예정지 "시유지 매각 않겠다"

박광태시장

삼성홈플러스 광주 주월점 입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광태 광주시장이 19일 "홈플러스가 들어설 부지 내의 시유지를 매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열린 광주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삼성홈플러스 심의 결과, 교통개선 등 6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킨 뒤 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를 받도록 하는 '보고의결' 결정을 내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60대가 재래시장 돌며 소매치기

쌍나팔

○…노점과 좌판, 호객 등으로 번잡한 광주·전남지역 재래시장을 돌며 부녀자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홍모(63)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5일 시장 인근 모 한의원 앞에서 상인과 흥정을 하고 있는 박모씨(여·34)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과 도서상품권을 훔치는 등 재래시장 두 군데서 모두 48만원 상당의 금품을 슬쩍했다는 것.

○…경찰은 최근 재래시장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잇따르는 점으로 미루어 홍씨를 상대로 공범 및 추가범행 여부를 집중 추궁.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연구실적 좋아도 학생지도 못하면 결격"

재임용 탈락 광주 모 대학 교수 대학 상대訴 행정법원서 패소

연구실적이 우수했던 광주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 교육과 지도에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 소송을 냈으나 구제받지 못했다.

광주 모 대학은 지난 1987년 6월부터 총장의 대학운영을 둘러싼 비리와 폭력 등이 원인이 돼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거부하는 등 수업이 중단되고 장기간 학교행정이 마비됐다. 이 소동들이 속, 총장은 문교부의 종합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확인돼 물러났다.

그 무렵, 대학 부속병원 간부로 86년 9월 부교수로 승진한 이모씨는 당시 대학 측에 의해 다른 교수와 함께 직위해제 당했다. 학내 분규 및 학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등 이유였다.

이씨는 법원에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학교 측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19일 이씨가 "재임용 심사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와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연구실적이 A이고 외국어 능력과 국내외 학술활동 실적이 B 이상인 등 학문연구에 관한 평가는 대학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나, 1988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수업을 전혀 못하는 등 학생교육과 지도는 재임용 평가대상이 될만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생들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시험거부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자제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학생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학생교육과 지도에 문제가 있었으며, 학내 비리혐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